

SK에너지, 정전 피해액 70억원

한전, 피해현황 조사 결과 5곳에 199억원 ... 예상보다 훨씬 적어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정전에 따른 SK에너지 울산공장의 피해액이 최대 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은 울산 용연변전소의 설비 고장으로 정전피해를 입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5사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5곳의 피해액이 총 199억원에 달했다고 12월12일 발표했다.



정전 후 울산석유화학단지 모습

한전은 “5곳 중 SK에너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이 60억~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성의 용연 1공장 및 2 공장은 27억원, KP 케미칼 1억원, 에어프로덕츠 1억원으로 조사됐다”며 “동서석유화학을 비롯해 12사에 전기와 스팀을 제공하는 한주는 총 1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12월6일 정전으로 전체 공장의 절반이 넘는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이 모두 가동 중단된 바

있으며, 정유공장은 정전 후 곧바로 공정을 복구했으나 석유화학공장은 12월10~11일 복구를 마무리했다.

앞서 울산시는 한전이 전망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전이 피해규모를 추산했음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보상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2>